전남 도로 사업 '예타조사' 반려 왜?

꼬불꼬불 위험도로 확장하자는데 정부는 경제성 타령만

2차선 사고 다발 구간 경운기 지나가면 '아찔' 새만금~대구 등 사업추진 형평성에도 맞지 않아

보성에서 고흥으로 가는 국도 77호선을 이용해 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아찔한 경험을 해 봤을 것이다. 꼬불꼬불한 2차로에 경운기라도 한 대 지나갈 때는 추월을 하지 못한 차량이 길게 줄을 지어 지체가 되기 일쑤고, 마주 오는 차선에서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는 차량이 앞을 가로막는 위험한 순간도 잦다.

최근 정부가 반려한 전남도의 예비타당성 조사 건의 사업들은 대부분 이런 국도를 4차로로 확장해 달라는 것이다. 새로운 도로를 건설해 달라는 게 아니라 사고 위험이 큰 기존 도로를 넓혀달라고 예타 조사를 건의했지만 단 한 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관광객이 많은 구례 일대의 구례구~구례읍간 국도(17호선), 구례~경남도계간 국도(19호선), 함평~해보간 국도(15호선), 광양 진상~다압간 국도(2호선)는 행락철 대표적인 상습 정체구간이 대부분이다. 이들 도로는 벚꽃과 매화, 나비축제 등을 보기 위해 몰려드는 차량으로 2차로가 아예 주차장이 되곤 한다.

전남 예비타당성 조사 건의 현황

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억원)
보성~고흥간 국도 4차로 확장(77호선)	25.0	6665
진상~다압간 국도 4차로 확장(2호선)	7.4	1132
구례구~구례읍간 국도 4차로 확장(17호선)	4.4	600
구례~경남도계간 국도 4차로 확장(19호선)	14.5	2200
장흥~안양간 국도 4차로 확장(18호선)	10.2	1560
남창~서흥간 국도 4차로 확장(77호선)	5.0	760
장성~대전간 국도 4차로 확장(24호선)	11.5	1495
함평~해보간 국도 4차로 확장(24호선)	13.7	1781
담양~무정간 국도 4차로 확장(15호선)	14.0	1820
서해철도(목포~군산) 건설	150.0	500
광주~대구(광주역~압록역)간 철도건설	45.0	11500
광주~화순, 광주~혁신 도시간 광역철도 건설	40.0	15147

또 목포~군산을 잇는 서해철도와 광주역~압록간 철도, 광주~혁신도시간 광역철도 등도 광주·전남권 교통망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이다.

정부는 현재 이들 철도 계획이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예비타당성 조사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전남지역 도로·철도 사업의 경우, 지역 내 인구가 적다 보니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더라도 그 잣대가 되는 경제성 분석인 B/C(비용·편익)가 낮게 나와 실제 착공으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도 잦다.

정부가 예타 조사도 받아들이지 않고, 예타 조사 과정에 1~2년을 허비한 뒤 B/C가 낮아 사업이 보류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셈이다.

실제 전남도의 최대 현안 사업 중 하나인 광주~완도 고속도로(89.25㎞)도 어렵게 예타에 들어갔지만 B/C가 기준치인 1.0보다 낮은 0.66에 그쳐 첫 삽도 못 뜨고 있다.

B/C가 1.0을 넘기는 것은 전국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2009년 이후 대형 신규 정부프로젝트 71건 중 예타를 통과한 사업은 25건(35%) 뿐이었다.

이에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은 아예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전남발전연구원 이건철 원장은 "B/C 기준치인 1.0보다 낮지만 새만금~대구 고속도로(새만금~전주, 무주~대구)는 사업을 추진하는 등 예타가 지역별 형평성 없이 추진되는 경향이 있다"며서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야 길을 뚫는 건 맞는 말이지만 길이 새로 나야 사람이 몰린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남도 등은 올해 반려된 예타 조사 건의 사업 12건 중 검토를 통해 3~4개를 빼고, 모든 계획을 다시 수정해 건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朴 "야당 소임 돌아봐야" 野 "야당 탓 좀 그만하라"

정치권 '强 대 强'… 대치 장기화할 듯

조찬기도회 박근혜 대통령이 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근혜 대통령이 7일 현재의 정부조직법 대치 정국과 관련, 사실상 야당을 정면 비판하자 민주통합당도 이에 정면 대응하고 나서면서 정치권의 '강 대 강'(强 대 强) 대치가 장기화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박 대통령은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 "우리나라의 대내외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에서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제대로 일을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모두가 본연의 소임이 무엇인지 스스로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이용훈 목사의 "하나님이 정치지도자에게 권세를 준 것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는 직전 발언을 거론하며 "우리 정치지도자들이 사심 없이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할 때 어떤 위기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국민에게 희망의 새 길이 열린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야당의 지도자들이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않고 있고 '사심'을 가져 '정의'를 실천하지 않는다는 뜻이어서 야당 지도부에 작심하고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지난 4일 대국민 담화가 "간곡하게 부탁드린다"는 식의 '읍소' 측면이 강했다면 이날 발언에서는 비판의 강도가 크게 높아졌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또 "제가 대통령이 되고자 했던 이유도 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행복 시대를 열고 국민을 위한 희망과 봉사를 제 마지막 정치 여정으로 삼고 싶은 소망 때문이었다"며 "그에 대해 국민께서 신뢰와 믿음을 보내주셨는데 우리 정치권에서도 한번 대통령을 믿고 국민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호소했다. 나아가 "그래서 잘못됐을 때는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도 정치지도자 중 한 명으로 누구도 책임과 역할을 대신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유일한 정치지도자"라며 "야당 탓, 밑도 끝도 없는 압박정치는 그만 하고 대통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해달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정부 지각출범의 책임은 인수위 출범, 총리와 장관 내정 등 모든 분야에서 지각한 박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박 대통령의 전략적 태업이 계속되고 있다"며 "장관이 없어서 국무회의를 하지 못하고 손발이 없어 공식일정을 잡지 못한다며 야당을 압박하는 대국민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에서 청문회를 통과한 장관조차 임명하지 않고 정례 국무회의도 생략하고 공식일정도 하루걸러 하루씩만 잡는 것은 야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與 "표결하자" 野 "직권상정 안돼"

정부조직법 처리 싸고 대결

새누리당이 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그동안 여야 간 합의한 사안을 토대로 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하자고 요구했으나, 이번에는 민주통합당이 거부했다.

전날 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공영방송 이사 임명요건 강화, 언론청문회 실시, MBC 사장 사퇴 등 3대 조건을 제시한 데 대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거부한 것과 같은 형국이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야 양당의 원내대표가 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한 법률을 원안대로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하도록 요청하자"고 민주통합당 측에 제안했다.

이 원내대표는 그러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3대 조건에 대해선 "이는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자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무리가 많다"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직권상정은 여야가 합의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면서 "국회법을 지키면 행안위에서 안건조정위를 진행해야 하는데 어떻게 직권상정 얘기가 갑자기 나오느냐"고 일축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러나 "수정안을 만들어서 방통위와 관련된 것을 제외한 나머지 합의된 부분은 즉시 합의해서 처리하자는 데는 동의한다"고 '역제안'을 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하는 일이란게 고작…

세기보청기

세기의 무대는 세계입니다!

탁월하지 않으면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세기보청기는 누구도 따라 올 수 없는 완벽한 기술력을 모두 갖추었습니다.
이제 세기보청기가 여러분을 행복 속으로 모시겠습니다.

대한민국 대표보청기-
세기스타·세기보청기
www.segistar.co.kr

전국 점망
서울 삼일로점(탑골공원 삼일로 입구):02)2276-0687~9 강남점(강남고속터미널 앞):02)3477-5110 종로2가점(금강제화 옆):02)733-0220 송파점(석촌역 2번 출구):02)419-3388 선릉점(선릉역 2번 출구):02)565-1838 경기 인천점(구.시민회관 앞):032)421-2288 부평점(부평역앞):032)517-5110 수원점(남문 옆):031)246-5110 의정부점(포천로터리 홍국생명 앞):031)821-6655 안양점(벽산스필2001 아울렛 앞):031)469-0110~1 평택점(평택역 앞):031)658-5110 용인점(용인네거리):031)336-1090 오산점(국민은행 2층):031)378-4183 부천점(롯데백화점 옆):032)329-4400 남양주점(광내 호평역 앞):070)8829-9903 부산 서면점(서면로터리):051)818-8800 서면A점 818-0016 남포동점(부영극장 앞):051)256-7200 울산 울산점(공업탑로터리):052)268-2283 경남 마산점(마산역 앞):055)297-6060 진주점(중앙로터리 옆):055)745-9870 대구 동인점(동인네거리):053)425-4440 삼덕점(삼덕네거리):053)426-1511 남일동점(이카데미극장 옆):053)425-7575 경북 포항점(육거리):054)244-5110 안동점(구 안동농고네거리):054)859-2248 광주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062)651-4477 전남 순천점(중앙사거리 지하상가빌):061)752-8845 전북 전주점(진북로터리):063)252-5728 군산점(구.시청정문 옆):063)446-0198 익산점(북부시장네거리):063)838-5600 남원점(시장네거리):063)632-2626 대전 대전점(도청 앞):042)254-5110 대전점(중촌로터리):042)222-3388 대전점(대전역 앞):042)255-4900 충남 천안점(천안역 앞):041)553-2888 공주점(공주큰사거리):041)852-5110 충북 청주점(현.까르프 구.속리산고속 맞은편):043)222-1177~8 충주점(삼원로터리):043)852-1414 강원 강릉점(옥천오거리):033)647-0588 춘천점(팔호광장 앞):033)253-5110 제주 제주점(광양로터리):064)753-4368

세계적 권위의 인증!FDA허가!
미국 식품의약국 FDA허가 인증
국제품질 ISO 9001인증
국제의료기품질 ISO 13485인증
유럽공동체 CE마크 인증
의료용구 제조업체

상담전화
1588-8499/080-222-0100
세기보청기 대리점 사업본부 문의전화 02)538-9388

■광주점(금남로 4가역 사거리)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225-5110
■광주점(백운광장)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2)651-4477
■순천점 세기보청기 문의전화 (061)752-8845